

시끌벅적 e-스타



박용수의 파스칼리



“참 신기하네”... 마술 동영상 인기

“그렇던 젓가락의 별레는 누가 옮겼을까?” 생활 속 마술 따라잡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마술 동영상들이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마술에 등장하는 도구는 간단하다. 낚시 낚시와 단팥 친구 나무 젓가락이 주인공. 평범한 젓가락에 마술사가 잠시 기합을 넣는 것 같더니 별레 모양의 그림들이 나타난다. 앞뒤로 뒤집어 젓가락을 보여주지만 역시 뒷면에도 별레 그림이 있다. ‘곧 별레들을 사라지겠 하겠다’는 자막과 함께 마술사가 젓가락을 쏙~ 한 번 훑자 순식간에 별레들이 사라져 버린다. 마술사는 친절하게 젓가락을 앞뒤로 보여주면서 별레가 확실하게 사라졌음을 확인시켜준다. 다시 한 번 별레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동영상을 보여 준 뒤 그 비법이 공개된다. 비법은 바로 엄지손가락. 깨끗한 젓가락 한쪽 면에 별레 그림을 그려 준 뒤 엄지손가락을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젓가락을 뒤집어 한쪽 면만 보여주는 게 포인트다. 이때 최대한 맑은 모습의 별레를 세 마리가 그려야 확실하게 속일 수 있다. 능숙한 손놀림을 보면 어~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마술이다. 간단하지만 재미있고 신선한 나무 젓가락 마술은 지난 24일 첫 선을 보인 뒤 3만여 네티즌의 클릭 세례 속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네티즌은 “신기하네요, 간단해 보이지만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손 놀림에 감탄합니다”의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술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재발 트리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겨주세요”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려인 가수 아니타 초이의 'Mama'

“엄마! 어디에 있어요? 나의 엄마! 엄마가 제겐 필요해요. 사랑해요.” 홀로 남겨진 아이가 간절히 엄마를 찾으며 기다린다. 고려인 가수 Anita Choi(아니타 초이)가 발표한 노래 Mama의 한 구절이다. 어두운 밤안에 홀로 남은 아이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를 애타고 그리워한다. 러시아의 한인 3세 Anita Choi가 부르는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 Mama는 Anita 자신이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 러시아의 젊은 엄마들과 아이를 잃은 아이들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이 곡은, 특히 중간에 흐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을 애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Anita는 집안에 홀로 남겨둔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연해주의 얼을 땅, 중앙아시아의 소금밭을 일구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어머니들이 겪어왔던 아픔을 말하고 싶었던지도 모른다. Mama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맞벌이 부부나 이혼모가 아이를 집에 두고 직장을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떠날 때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곡이다. 절박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드러난 허탈감은 현재 러시아 가정의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비단 머나 먼 러시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IMF이후 드러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는 가정의 실직이나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런 경제적 상황의 여파로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부모가 가출하거나 자녀 양육을 포기 하는 등 가족붕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부모로서 제대로 된 양육을 못 해주는 가슴앓이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아빠의 넓은 가슴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든든한 보호막이며 따뜻한 엄마의 품은 꿈과 희망을 주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일 것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인 공황 상태가 된다. 다음주면 설 명절이다. 명절은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시기이기에 생존을 위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부자·모자가정을 비롯해, 명절인데도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힘든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란 마치 먼 거역 속의 일로만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소외되어 있지 않음을, 행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야 사회가 나아가 나라가 행복해 지는 것이다. Anita Choi는 고려인이다. 한국인이 아닌 고려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녀의 호적상 이름은 ‘Anna Kim’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프랑스의 여성 혁명가 ‘안네 트베레르’의 이름을 따서 ‘아니타’라고 지었지만 러시아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안나’로 등록했다고 한다. ‘초이’라는 성은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이다. 출생과 함께 차별을 받았던 그녀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백만 송이 장미’로 알려진 러시아 최고의 가수 알라 푸가 초바가 주목하고 후원하는 가수 ‘아니타 초이’로 우뚝 섰다. 무자녀 새해에는 그녀처럼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버거운 우리의 이웃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가는 가정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날까지... <평클림리스트·광주TBN '넌만이 있는 곳에'진행자>

리빙 센스 깨끗한 냄비

부엌 살림의 필수 품목 냄비. 쓰임새가 많아서 때도 많이 타고, 가끔 태워버려 깨끗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식초와 사과껍질로 흠을 내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과 식초 냄비의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 흔히 금속 수세미로 문지르곤 하는데 흠이 나기 쉽습니다. 이럴 땐 물과 식초를 넣고 끓여준 다음 스펀지로 문질러 지면 깨끗해 집니다. ▲사과 껍질 알루미늄 냄비에 때처럼 남아있는 그늘들은 사과 껍질을 이용해 제거해 보세요. 냄비에 사과껍질을 넣고 잠깐 끓여주면 껍질에 포함된 산의 작용으로 그늘들이 쉽게 닦아집니다. 사과껍질 대신 레몬 껍질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탄 냄비 햇볕에 말리기 겉게 탄 음식 감량이 붙어 있는 냄비는 2~3일 동안 햇볕에 말려주세요. 햇볕에 완전히 마른 후 닦아주면 냄비에 붙어 있던 감량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31일(음 12월 24일 庚午)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January 31st, includ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Go board game problem with a 9x9 grid and numbered stones. Includes a solution key.

Go board game problem titled '제5회 KBC사창비' and '바둑소식'. Includes a solution key.

News section titled '바둑소식' and '청룡왕전 신에 돌풍 거세'.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includes a topic, a question, and a detailed answer.